관우가 먹었던 불도장부터 팔도 건강식까지

호텔 이색 보양식으로 '원기회복'

오는 12일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급호텔들은 무더위를 극복하고,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데 도움을 줄 다양한 메뉴로 고객의 발길을 당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특급호텔 보양식의 키워드는 '이색 메뉴'다. 최근 인기 있는 건강식 재료를 활용하거나,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뜨는 건강재료 담았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의 컨템포러리 코리안 다이닝 안뜨레(Entree)는 뜨고 있는 건강식품인 삼채와 체내 열을 내려주는 녹두를 활용한 '한방 녹두 삼채 삼계탕'을 오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선보인다.

한방 녹두 삼채 삼계탕./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측은 "닭 뼈와 살을 넣고 오랜 시간 직접 우려내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닭 육수에 부드러운 국산 영계와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추, 밤, 은행 등의 재료가 들어가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제격이다"고 설명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도 인기 재료를 활용한 고급 메뉴를 선보인다. 잣이나 민물장어, 사천식 메뉴 등이다.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 한식당 온달, 중식당 금룡에서 각기 다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온달에서 선보이는 '온달 여름나기'는 특별 메뉴인 해신탕과 민물장어탕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온달 해신탕은 혈압을 낮춰주는데 효과적인 인삼과 잣,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깨가 들어가 더욱 고소한 육수에 영계, 전복, 낙지 등이 푸짐하게 담겼다.

그런가하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타볼로 24'는 다채로운 메뉴 구성으로 고객을 공략 중이다. 지난 1일부터 진행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삼채·녹두 활용 '한방 삼계탕'
인터컨티넨탈
삼국지 보양식 모티브로 코스 선봬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막국수·콩국수 등 누들 프로모션

중인 '흥인지문 다이닝'은 한식을 주제로 하는데, ▲버섯 들깨탕 ▲한방꼬리찜 ▲복분자 장어구이 ▲대나무 죽통에 찐 오리찜 송이 떡갈비 ▲족발 냉채 ▲물회 ▲로스편채 ▲게장 등 풍성한 메뉴로 구성됐다.

◆입맛 돋우는 특색 메뉴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의 수라운지는 '서머 누들 프로모션'을 통해 시원한 면요리로 입맛을 돋운다. 국내산 메주콩과 서리태, 잣을 바탕으로 만든 고소한 국물에 시원한 얼음을 동동 띄워 즐기는 '냉 콩국수'와 새콤달콤한 소스와 고소한 메밀면으로 만든 '봉평 메밀 비빔 막국수'가 메인이다. 봉평 메밀 비빔 막국수는 국내산 메밀로 직접 면을 뽑아 더욱 쫄깃하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는 독특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삼국지 속 영웅호걸들이 즐겨 먹었다던 보양식과 전국 팔도의 보양식, 무항생제 닭을 사용한 특허받은 황제치킨 등이다.

중식당 웨이루에서 선보이는 '영웅호걸의 여름 보양식'은 삼국지 속 유비, 관우, 장비의 보양식을 모티브로 했다. 중국의 대표 보양식 재료인 전복, 불도장, 북경오리 등을 코스로 구성했으며, 전란 중 눈병으로 고통받던 관우가 먹고 증상이 호전돼 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전복 요리, 30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 중국 최고급 보양음식인 불도장, 마늘 소스를 올린 활 바닷가재찜과 웨이루의 시그니처 메뉴인 북경오리까지 총 7가지의 코스메뉴로 즐길 수 있다.

또한, 1층 뷔페 레스토랑 그랜드 키친에서는 전라남도의 낙지 연포탕, 경상북도의 물곰치국, 강원도의 찹쌀 녹두죽, 경기도의 돼지갈비 연근찜, 제주도의 자리돔 물회 등 '전국 팔도 보양식'을 만나볼 수 있다. 초복과 중복, 말복 당일에는 민물장어구이가 테이블마다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그랜드 델리에서는 이색 보양메뉴로 친환경 무항생제 닭을 사용해 초정리 천연 탄산수 염지 기법으로 특허 출원한 로스트 치킨인 '황제치킨'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브래서리에서는 초복과 중복 당일 제주 천지연에서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에서 최근 양식에 성공한 '장어의 꽃', 무태장어를 담백하고 고소한 소금구이로 선보이고, 일식당 하코네에서는 나고야 스타일의 민물장어 덮밥인 히쯔마부시를 8월 말까지, 아시안 라이브에서는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인 전복 삼계탕을 초복과 중복에 선보인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웨이루 여름보양식. /인터컨티넨탈

'DMZ 평화의길' 고성 구간 단체관광 스타트

관광公, 23일부터 단체방문 허용

한국관광공사는 'DMZ 평화의길' 고성 지역 단체 방문객 운영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개 정부부처 및 3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DMZ 평화의길'은 남북분단 이후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 개방돼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군부대의 안전한 경호를 바탕으로, 인위적 개발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체험하는 DMZ 도보관광 코스의 평균 경쟁률은 12대 1에 달한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단체관광 방문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고성 B코스(버스관광 코스)에 한해 개인과 단체 접수를 회당 40명씩 배분하는 것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기존 금강산전망대 외에 'DMZ박물관'을 코스에 포함시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방문 희망자는 공사의 'DMZ 평화의길' 누리집에 접속해 '고성 B코스'의 '단체접수'를 선택 후 원하는 방문일자를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안내센터의 담당자가 가능한 일정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단체관광 신청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최소 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방문자 명단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방문 당일 결원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 후 회차별 80명의 인원을 채워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김민서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中 고객잡기 '총력'

中 최대 여행사 씨트립과 '맞손'

호텔신라가 중국 최대 여행사인 씨트립과 손 잡았다.

호텔신라는 지난 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씨트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양사 간 파트너십 확대를 골자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량찌엔장 씨트립 명예회장, 쑨제 씨트립 최고경영자(CEO),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한인규 호텔신라 TR부문 사장 등 양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호텔신라와 씨트립은 글로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협력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양사 간 파트너십 확대를 골자로 씨트립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 후 (왼쪽부터)최창현 호텔신라 호텔&레저부문 전무, 하주호 호텔신라 커뮤니케이션팀 전무, 한인규 호텔신라 TR부문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량찌엔장 씨트립 명예회장, 쑨제 씨트립 CEO, 린취 씨트립 국제사업부문 부사장, 첸루량 씨트립 호텔사업부문 CE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 최고경영진과 씨트립 최고경영진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씨트립 본사에서 양사의 최고 경영진이 만나 방한 중국 관광객 확대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민서 기자

SPC그룹 커피앳웍스, 을지로서 만나세요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 오픈

SPC그룹이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커피앳웍스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새로운 매장 '센터원점'(사진)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커피앳웍스 센터원점은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1층에 215㎡, 114석 규모로 자리잡았다. '도심에서 즐기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콘셉트로 커피앳웍스의 전문 커퍼, 로스터, 바리스타 들이 엄선한 원두로 만든 브루드 커피, 에스프레소 베이스커피, 콜드브루 커피 등을 제공한다.

한편 커피앳웍스는 2014년 SPC그룹

커피앳웍스 센터원점 /SPC그룹

이 론칭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전 세계 유명 산지에서 생산되는 커피 생두 중 상위 7%에 해당하는 최상급 생두만을 선별해 사용해 다양한 추출방식으로 전문적인 커피를 제공한다. /박인웅 기자

스타필드 시티 부천, 만화로 꾸며진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 MOU
옥상정원에 40m 초대형 만화벽화

오는 9월 초 오픈 예정인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만화' 콘텐츠를 활용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스타필드 시티 부천 옥상정원에 부천시의 상징인 만화를 활용한 40m 길이의 초대형 만화벽화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시티 부천 옥상정원은 어린이 대상 오감 학습정원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초대형 만화벽화는 만화도시 부천의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 휴게 시설을 단장하는 사업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부천관내에서 활동하는 신진 만화작가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지역민들에게는 휴식과 즐거움을, 신진 만화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문화 상생 프로그램이다.

앞서 8일에는 스타필드 시티 부천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영상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관련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스타필드 시티 부천은 만화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스타필드 시티 부천은 9월 오픈과 동시에 만화를 활용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토존, 만화 그리기 체험 및 전시, 캐리커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8월 14일부터 열리는 22회 부천시 대표 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스타필드 시티 부천의 부스를 열고, 방문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해 만화축제를 도울 예정이다.

정종방 스타필드 시티 부천점장은 "스타필드 시티 부천은 부천 지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민들이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